

◎ 남과 비교하는 것은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

시기, 질투에 관한 명언

- 시기심은 살아 있는 자에게서 자라다 죽을 때 멈춘다
----- 오비디우스
- 질투는 휴일이 없다. 질투는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감정이다. 이는 악마의 속성이다.
----- 프랜시스 베이컨
- 질투심 많은 사람은 이웃 사람들이 살이 찌 때 마르게 된다.
----- 호라티우스
- 시기, 질투심은 ‘마음 챙김’을 통해서 애써 줄여나가야 한다. 그 지름길은 잘 되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급적 갖지 않는 것 아닐까 싶다.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“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”이라고 했다. 비교하지 않는 마음 갖기란 결코 쉽지 않다. 수양이 필요하다. 타인의 행복에 조금은 기쁨을 할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. 불교에서 말하는 ‘무디타(Mudita)’가 바로 그것이다.